

중국 개혁개방기 80년대생(80後) 여성의 '욕망' 재현*

— 장소성과 젠더관점을 중심으로

김미란**

<목 차>

1. 들어가며
2. '성공한 여성'의 삶
 - 2.1 베이징이라는 '타': 떠돌이 '베이파오(北漂)'
 - 2.2 수퍼우먼과 '결혼적령기'
 - 2.3 수용자들: 성도덕비판에서 욕망옹호까지
3. <도쿄여자도감>의 여성상
4. 80년대생 여성 욕망의 특징과 구성
 - 4.1 '정책-자본-미디어'의 삼각동맹과 '노처녀'
 - 4.2 일체의 도구화: 단절과 성찰부재
5. 나가며

1. 들어가며

2018년 4월에 방영된 <<베이징여자도감>>¹⁾은 중국 드라마사에서 주목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80743)

**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교수·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meilan@skhu.ac.kr)

1)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유쿠(優酷)에서 제작한 드라마로 리즈(黎誌)가 감독을 맡고 치웨이(戚薇)가 주인공역을 한 20부작이다. 2018년 4월 10일에 유튜브에서 단독 방영되고 2019년 1월 12일에 제3회 金骨朵 인터넷 영상페스티벌(網絡影視盛典)에서 올해의 10대 명작으로 선정되었다. 쓰촨성 소도시 출신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린 것으로 베이징이 주요 배경이다. <https://baike.baidu.com/item/%E5%8C%97%E4%BA%AC%E5%A5%B3%E5%AD%90%E5%9B%BE%E9%89%B4/22199929?fr=aladdin>(검색일: 2020.1.5.)

만한 작품이다. 12억이 넘는 뷰²⁾라는 기록적인 조회 수 외에 원작인 일본의 《도쿄여자도감》(2016)³⁾을 성공적으로 번안하여 아류작 시리즈를 탄생시킬 만큼 하나의 전형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다.⁴⁾ 일과 사랑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여성을 그린 이 두 작품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물론 중, 일 양국에까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82년생, 김지영》⁵⁾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한 인간으로서 여성이 사회적 성취 욕구와 결혼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가 그것이다.

‘연애’와 ‘결혼’은 여성 당사자는 물론, 20세기 초 민족주의적 지식인과 자유주의적 지식인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였으며⁶⁾ 사회개혁이 가족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주의 건국 이후도 예외가 아니었다.⁷⁾

연애와 결혼에 대한 국가의 간여는 근대국가 통치성의 핵심인 ‘생명 정치’의 주요 내용이다. 영토 내 인구학적 조절을 목표로 하는 생명 정치는 저출산 시

2) <한 달 만에 조회 수 12억 뷰, 증드 ‘베이징여자도감’>: <https://blog.naver.com/wolf42b/221302365515>. 원 출처는 중앙일보, 2018. 5. 24. (검색일시: 2019.2.1.) 기사는 조회 수만이 아니라 댓글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성공작이었다고 보도하였다.

3) 아마존닷컴 재팬이 제작하고 타나다 유키(タナダユキ)가 감독한 일본 드라마로, 만화인 ‘도쿄 캘린더(東京カレンダー)’ <도쿄여자도감(東京女子図鑑)>이 원작이며 주인공 사사키 아야(佐々木綾)의 삶을 20세부터 40세까지 그린 11부작 드라마이다. 시간적 배경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이며, 공간적 배경은 주로 도쿄도이다. <https://namu.wiki/w/%EB%8F%84%EC%BF%84%EC%97%AC%EC%9E%90%EB%8F%84%EA%B0%90>. (검색일: 2019.3.4.)

4) 대표적인 후속작이 《上海女子圖鑒》(20집, 감독: 程亮, 2018)이다. 중국 사회에서는 《환락송(歡樂頌)》부터 《두라라 승진기(杜拉拉升職記)》, 《베이징여자도감》부터 《상하이여자도감》까지를 직장여성의 일과 사랑을 그린 ‘신시대 여자도감’이라고 묶어서 통칭한다. <新時代女子圖鑒>, 《界面新聞》, 2018.6.1. <https://baijiahao.baidu.com/s?id=1602037576456904407&wfr=spider&for=pc>(검색일시: 2020.4.1.)

5)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2016.

6) 안재연, <“리엔아이”(戀愛), 신여성, 근대성의 이데올로기: 중국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38집, 2006.

7) 1949년 건국 직후 결혼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고 부모의 ‘제3자 개입’금지를 명문화한 <혼인법>(1950년)과 개혁개방 시기에 반포된 <수정혼인법>(1980년)이 각각 청년과 여성을 국가건설에 동원하고 또 ‘효’의 복원과 아내의 역할강조를 통해 사회주의 복지 공백을 가정으로 이전시키고자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미란, <중국 1953년 혼인 자유 캠페인의 안과 밖: 관철방식과 냉전하 문화적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Cui JinYing, 《중국의 ‘핵심가정’ 구성에 대한 담론 연구 -개혁개방 초기(1978~1992년)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2012)를 참조할 것.

기에 진입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는 관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독립적인 미혼(비혼)여성을 '이기적이며' '성적 매력이 없는' 집단으로 낙인 찍는다. 결혼이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며 여성은 결혼을 해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담론과 문화에 의해 낙인은 공고해지며 《도쿄여자도감》과 《베이징여자도감》은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산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자가 공통적으로 지방 출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결혼 시장'에서 겪는 좌절과 딜레마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최종 선택과 그 재현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도쿄여자도감》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다움, 매력'이 일을 통한 성공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가를 드러내며 섹슈얼리티의 위계성을 고발한다. 이와 달리 《베이징여자도감》은 기존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내포된 권력의 위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의 성적 매력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성공을 위해 동원하는 여성상을 재현한다.

속칭 '노처녀(성녀, '剩女')⁸⁾가 될까 두려워하며 두 주인공이 겪는 심적 갈등은 '결혼적령기'에 대한 압박감에서 비롯되며 이는 여성이 겪는 '시간과 젠더'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특정한 연령대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생물학적 역할과 문화적 억압은 동일연령의 남성들에 대한 요구와 다른데 전희경은 이를 '젠더-나이체제(gender-age regime)'라 호칭하고 '나이(시간성, temporality)'가 남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사회문화적인 구성물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1960-8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정책과 담론분석을 통하여⁹⁾ 여성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성'이란 이미지가 부가되어 '보호

8) '혼기를 넘겨 남겨진 여성'이라는 의미의 '성녀'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2008년 이후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먹다 남긴 밥'이라는 부정적 의미로까지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로 '노처녀'를 택하여 성녀와 혼용하였다.

9) 전희경,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2013.

의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결혼퇴직제'처럼 나이 각본에 따라 적령기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여성들이 '정상각본'과 다르게 사는 경우에는 '낙오, 퇴행, 뒤처짐' 등 일탈적 존재로 설명되었다고 분석한다.¹⁰⁾ 그렇다면 동일하게 '시간'의 압박을 받는 직장여성이 두 드라마에서 상이한 선택을 한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중국 사회에서 '80년대생'에 대한 연구는 이 집단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학과 미디어, 문화연구 영역에서 주요한 분석주제로 다루어진다. 현재 30세 전후인 이 집단은 집체 시대와 시장화 시대의 전환기에 성장하여 물질적 성취 욕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중추적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였고 이들의 결혼관에 따라 오늘날 중국사회의 가족 형성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이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생은 여전히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도시화로 인해 급증한 외지출신의 도시 거주 청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생존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도시 선주민의 외지인에 대한 제도적 배제와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¹⁾ 그리고 2000년 이후 급증한 '도시멜로물(都市情感片)'장르에는 직장여성이 주요 재현대상으로 다루어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환락송(歡樂頌, Song of Joy), 2018》¹²⁾이 탄생되었는데 이를 분석한 <드라마《환락송》의 여성형상분석>¹³⁾은 시장화 이후 중국 사회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읽어 냈다. 계층분화가 뚜렷해진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가정환경이 다른 5명의 지방 출신 여성의 성장기를 통해 자립적인 여성상,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재벌 2세(富二代),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전략으로 택하는 여성 등 지역, 성별, 계급의 관점에서 분석

10) 전희경,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2013, pp.50-55.

11) 張羽, 《80後“北漂”的生存狀態探析》, 中國馬克思主義學院 碩士論文, 2008.

12) 賈苗渺 李誌方, <都市劇中的女性人物形象分析——以《歡樂頌》為例>, 《西部廣播電視》 2018年 24期, p.116. 또한 2016년 방송되던 해에 《歡樂頌》은 113억이라는 기록적인 시청자 클릭 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丁戀, <試論電視劇《歡樂頌》中的人物形象塑造>, 《今傳媒》, 西安石油大學, 2019年 5期, p.99.

13) 杜洪曉, <電視劇《歡樂頌》中的女性形象分析>, 《視聽》 2019年 4期.

하였다. 이에 앞서 대졸 엘리트 여성이 도시 생활의 압박에 스스로 기생적인 '샤오싼(小三)'¹⁴⁾의 삶을 선택한 드라마 《단칸 방(蝸居, Dwelling Narrowness), 2007》¹⁵⁾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¹⁶⁾ 연구물들은 지방출신 여주인공의 '가치관 타락'이란 관점에서 비판한 경우가 많았다.¹⁷⁾

위의 분석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장화로 인해 여성이 결혼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다양'해진 여성상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립'과 '의존'의 기준이자 대상인 남성상, 즉 이원화된 남녀의 섹슈얼리티와 그에 기반한 위계적인 젠더 질서에 대한 성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별 환경의 차이나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화 진입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는 중국사회의 현실적 조건의 변화지점들을 원작과 번안본의 차이를 참조함으로써 중국사회 시장화 개혁이 지난 '토착적' 특성이란 측면에서 읽어 내고자 한다.

《베이징여자도감》은 장르상 도시 멜로물에 속하지만 종종 분투형 드라마(勵志片)로 소개되기도 한다. 다수의 수용자들은 《베이징여자도감》의 주인공이 기존의 도시 멜로물에 흔하게 등장하던 남주인공이 여성에게 첫눈에 반한다거나 '백치미를 띠고 애교를 부리는(傻白話)' 여성상이 아니라¹⁸⁾ 독립적

14) 샤오싼이란 제3자(第三者)를 약칭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혼외관계에 있는 정부(情夫), 내연녀를 가리킨다.

15) 소설가 六六의 장편소설 《蝸居》(2007)를 드라마로 만든 것으로 1998년 상하이 부동산 폭등시기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2008년 인터넷 올해의 검색어 1위에 샤오싼이 올랐다. 이 외에 《蝸居》를 분석한 탁월한 논문으로 《《蝸居》和“中國夢”》(丁小鶯, 北京大學 中國現當代文學碩士論文, 2011)이 있다.

16) 張權生, <《蝸居》的女性主義批評>, 《貴州大學學報(藝術版)》, 2011年 1期.

17) 連佳慧, 《中國電視劇中的“剩女”形象研究》, 山東師範大學 戲劇與影視學 碩士論文, 2015, p.47.

18) 火星이란 아이디를 쓰는 수용자의 댓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好看, 故事緊湊, 習慣了快進的我居然沒快進過, 比那些傻白話卻有個癡情百倍的男主鐘情的劇真實多了, 女主演得好, 看到現在能看到她一直的成長和每一經歷給人的反思。” 優酷用戶 2018年04月18日. 이하 수용자 댓글들의 출처는 《베이징여자도감》를 방영한 유쿠 홈페이지(https://v.youku.com/v_show/id_XMzUyMDMxMjgzNg==.html?spm=a2h0k.11417342.soreults.dt&title&s=e18089efbfdbefbfbd48(검색일: 2020.1.5.))에서 검색 가능하므로 별도 표기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도시 멜로물의 신데렐라형 여성상이 주로 한류 드라마의 영향 탓이라고 간주하여 중국 내 한류 연구물들은 종종 현실을 낭만화하는 한류의 '신데렐라'형 드라마의 비현실성을 지적한다. 한편, 1980-90년대에 포스트 사회주의 시기에 중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몸에 대한 자각과 꾸미기, 화장, 복장 등 여성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이고 강인한 여성이란 점에 호응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분투형 드라마로 분류될 수 있다. 자립적 여성상이라는 점 외에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주인공의 '외지인' 신분에 있다. 화려한 대도시를 무대로 야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불굴의 지방 출신 주인공에게 지방출신자들은 깊이 공감하고 경험을 토로하는데 이들 가운데 다수가 80-90년대생들이다.

그러므로 《베이징여자도감》을 분석하는 데는 대도시와 지방이 주인공과 맺는 관계, 즉 '장소성'과 '젠더'라는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장소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원작 《도쿄여자도감》도 지방 출신 여성의 상경 분투기를 그리고 있기는 하나 일본에는 도시주민과 지방출신(非도시호구 소지자)자의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차별¹⁹⁾하는 '호구제'(戶口制,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가 존재하지 않아 번안작과 장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방 출신, 즉, 비도시 호구 소지자는 '국민'과 '시민' 신분 사이에서 균열을 겪고 있으며 이런 현실은 이주자들의 행위와 인식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 이에 이 글은 《베이징여자도감》에 대한 분석을 원작과 비교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시장화 시대 중국사회의 토착적 특성을 젠더와 장소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성공한 여성'의 삶

2.1 베이징이라는 '턱'-떠돌이 '베이파오(北漂)'

2016년에 《도쿄여자도감》이 중국에서 성황리에 방영되자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쿠(优酷)는 이 포맷을 차용하여 2018년에 《베이징여자도감》을

눈뜨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 학원물(교복에 짧은 스타킹을 신은 여학생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한다.

19) 호적취득, 주택구입과 교육권에 있어서 겪는 차별을 의미한다.

제작하였으며 드라마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주인공의 대학 졸업부터 베이징에서의 일과 사랑을 그렸다.

중국 드라마사에서 개혁개방 시기에 태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지방 출신 청년들의 감성과 경험을 그린 작품으로는 《분투(奮斗)》²⁰⁾, 《개미족의 분투(蟻族的奮斗)》²¹⁾, 《베이징 러브스토리(北京愛情故事)》²²⁾ 정도가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청펑(程鋒), 우디(吳狄)와 스샤오멍(石小猛) 세 대학 동창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베이징 러브스토리》는 각기 다른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 청년의 분투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가운데 편벽한 윈난(雲南)성의 농촌 출신인 스샤오멍(石小猛)은 결혼을 위해 11평짜리 번두리 아파트를 장만하려다 그 꿈이 좌절되자 사업가 집안인 친구인 청펑에게 자기 애인을 '양보'하고 댓가로 출세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여 성공을 향해 매진한다

이들 드라마에 재현된 외지인 청년들의 정서는 '분투(奮)'라는 한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 지방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떠돌이 정서(漂情緒)'²³⁾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뿌리내릴 '장소 없음'에 대한 저항이자 분노인데 이 정서는 강한 물질적 성취를 특징으로 한다.²⁴⁾ 특히 청춘 멜로물에는 '집의 노예(房奴)'가 되는 삶이 통상적으로 등장하고 이는 1950, 60년대에 태어나 분배제도 하에서 주택을 분배받았던 부모세대와 80년대생들 사이의 가장 뚜렷한 생존환경의 차이이다.

20) 베이징의 신바오위엔영상유한회사(鑫寶源影視投資有限公司)가 제작하고 자오바오강(趙寶剛)이 감독한 32부작으로 80년대생의 꿈과 삶을 그린 작품으로 2007년 5월 6일 상하이 텔레비전(上海電視劇)에서 방영하였다.

21) 2010년에 제작하여 2011년에 저장(浙江) 지상파에서 첫 방송을 하였으며 인문미디어(銀潤傳媒)가 제작하고 다이빙(戴冰)이 감독한 33부작 작품이다. 80년대생이 졸업 후 도시 번두리에 개미족으로 살면서 고난을 극복하여 결국에는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에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22) 2012년에 제작되어 저장위성텔레비전(浙江衛視)에서 방영된 39부작 드라마로 천쓰청(陳思誠)이 감독, 주연한 작품이다.

23) “《北京女子圖鑒》：“漂”時代的“漂”情緒 _ 蒲公英獎”, 2019.6.21. https://www.sohu.com/a/322293289_443957(검색일: 2020.3.4.)

24) 위 글, 2쪽.

지방 출신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도시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은 《분투》의 졸업식 장면에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졸업식 날 선생님을 찾아간 이들은 “리 선생님, (.....) 저희는 반드시 선생님을 떠나서 취직하러 가야 하고 연애를 해야 하고 분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라 하루도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떠나기 전에 드리는 저희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²⁵⁾라고 장엄하기까지 한 고별인사를 한다. 집단적으로 탈고향 선언을 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 이전의 드라마에서는 없던 장면으로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는 모습은 《베이징여자도감》의 주인공 천커(陳可)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5년에 태어난 천커는 쓰촨성의 중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그곳에서 중급 수준의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다. 모친은 딸이 자신처럼 고향에서 연봉 2,000 위안 정도를 받으며 안정적인 세무공무원을 하며 평탄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천커는 고향에서 산다는 것이 엇비슷한 동향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마작이나 하고 담배를 피우는 남편 시중을 들며 늙어가는 ‘그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한다.²⁶⁾ 그래서 그녀는 졸업과 함께 단돈 100위안을 들고 무작정 상경하여 베이징 변두리에 친구지하방에 얹혀살며 일자리를 구한다. 그녀의 목표는 ‘베이징 사람이 되는 것(北京人)’이며 “나는 집을 사고 차를 사서 베이징 사람이 될거야!”라고 선언을 한다. 이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베이징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을 의미한다.

무릇 사람과 장소는 근원적으로 연관된 개념이다. 우리가 특정한 사회 안에 들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즉 장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학자 고프만(Erving Goffman)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잘 살진 못 살진,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모두 사람으로서 평등하다고 말한다.²⁷⁾ 그러나 우리

25) 廉明靜, <都市題材電視劇中的“北漂”形象研究>, 《傳播力研究》, 2017, p.1.

26) 제1집에 그녀는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세무서 직원인 남자와 맞선을 보는데 양가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맞선 남성은 담배를 피우면서 다리를 떨고 자신이 밤새 마작을 했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고 천커는 이를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본다.

2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15, p.26.

를 사회적 존재인 '사람'(자연과 연관된 '인간'이 아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는 '대접'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경은 "사람행세를 하고 사람대접을 받는 데 물질적인 조건들은 중요하지만 조건이 충족된다고 장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²⁸⁾ 필요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선주민의 '환대'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선주민으로부터 환대를 이끌어 내는가 여부가 귀속감 형성에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커가 '베이징사람이 되는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닌 '베이징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었다.²⁹⁾

개혁개방 이래 중국 사회는 크게 두 차례의 외지인의 유입을 경험하였는데 이 두 집단은 시기나 구성면에서 구별되고 받는 대접 또한 달랐다. 시장화 개혁으로 인해 1979년 17%에 불과하던 중국의 도시화율이 2017년에 50%로 높아지고 느슨해진 호적정책에 의해 도시로 온 외지인들은 2.4억 명(2018년)에 달하였다.³⁰⁾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외지출신의 도시 이주집단에 포함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외지인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파오족(漂族)'이다. '떠돌고 있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광의의 파오족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같은 대도시에 머물고 있는 외지인들을 가리키지만 좁게 정의하면 '도시에 거주하고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수준이 높거나 기술을 지닌 청년층으로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춘 집단'이다.³¹⁾ 육체노동자인 농민공들이 도시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를 연상시키는 '流³²⁾자를 포함한 유동인구(流動人口, floating population)³³⁾로

28) 김현경, 앞의 책, p.27.

29) 김현경은 사회 안에서 행위자로서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 외에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의례인 '상호작용질서(inter action order)'가 바로 '성원권'의 인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30) 유동인구는 1982년에 657만 명이었다가 2015년에 2.47억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뉴 노멀(저성장)'시기에 들어 다소 감소하여 2018년에 2.41억 명으로 인구 6명 가운데 1명이 유동인구인 셈이다. <2.4億流動人口, 妳們爲什麼不留下來?>, 《每日經濟新聞》, 2019.1.30. 출처: https://www.sohu.com/a/292500916_115362(검색일: 2020.4.2.)

31) "一般指那些在北京工作、生活卻沒有北京戶口的人群, 通常以青年爲主體, 他們大多數具有一定的學歷或較高的文化素養和知識技能。" 範麗娜, <"北漂"群體生存狀況探析>, 《北京市工會幹部學院學報》第32卷 第4期, 2014年 12月, pp.34-35.

통칭되는 것과 달리, 협의의 파오족은 '장차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차세대'라는 기대를 받는다.³⁴⁾

그러나 베이파오(北漂)인 천커는 고향을 떠나올 때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외지인 신분'의 한계를 깨달아 가며 그 과정은 총 20집 가운데 12집부터 15집에 집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하던 천커는 월급이 7,000위안으로 오르자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집 없이' 베이징에 집 계약을 추진하지만 이내 자신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베이징 호적 소지자만이 주택가격의 30%를 착수금(首付)으로 내고 70%를 은행대출을 받아 집 장만을 하는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동차 역시 도시호적이 없으면 구입제한이 있어 불가능한 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³⁵⁾

그 즈음 돈에 쪼들린 천커는 애인 사이인 재벌 2세 남성에게 용기를 내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재벌 2세 애인은 '소장가치가 있는 그림을 한 점'을 주겠다고 답한다. 당장 월세가 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술품 소장을 제안하는 애인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삼키는 천커의 모습에는 몸 하나밖에 없는 외지인과 베이징사람 사이의 '격차'가 드러나 있다.

애인에게 신세를 지려는 천커의 이러한 태도는 수용자들에게 '남자를 통해 신분 상승'을 하려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파오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이 '격차'가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3년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징의 외지인들

32) 流浪 혹은 流民, 부랑아를 뜻하는 '리우망(流氓)'과 상통한다.

33) 王俊祥·王洪春, 《中國流民史》, 安徽人民出版社, 2001, pp.271-288.

34) 範麗娜는 <“北漂”群體生存狀況探析> (《北京市工會幹部學院學報》 第32卷 第4期 2014年 12月)에서 “베이파오, 후파오(滬는 상하이 옛 지명)는 줄곧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장 분투기를 그린 《베이징여자도감》과 《상하이여자도감》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北漂、滬漂壹直是社會關注話題, 同樣是講女性成長奮鬥的《北京女子圖鑒》、《上海女子圖鑒》會如何來呈現故事令人關注)”고 기술하였다.

35) 김중현, <농민공 도시정착의 문제와 한계>, 《중국학연구》 62집, 2012, pp.331-335. 김중현 역시 이러한 진입 문턱은 계급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한국사회가 '의무교육 확대' '보급자리주택' '서민층 무상교육' 등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평한다.

은 2011년 기준으로 평균 급여의 40%를 내는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 공동 주거 임대인 경우엔 월세가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며 베이징시 내 월세 거주자의 85%가 외지인이다.³⁶⁾ 논문 《80년대생 “베이파오”의 생존상태분석》³⁷⁾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택 구입은 물론 호적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할 때 계층적인 분리를 용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외지인에게 도시정착의 조건으로 일정한 투자액과 납세기준 중 하나를 요구하여 광조우시의 경우엔 500만 위안 이상의 투자자에게, 베이징시는 3년 이상 연간 납세총액이 80만 위안인 자에게, 상하이시는 연간 납세총액이 100만 위안인 대상에게 호적신청을 허용하고 있다.³⁸⁾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차별이 ‘외지인을 위협으로 보고 주택과 노동력 시장에 통제를 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베이파오의 삶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 되며 이는 장차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충격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외지인에 대한 제도적인 배제는 흔히 일상영역에서 외지인에 대한 경멸과 모욕으로 나타난다. 베이징 살이 6년째 되던 해인 2013년(11집~12집), 주차난이 극심한 베이징 시내에 불법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 끊어버린 일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웅성대다가 ‘여기가 800위안 짜리(한화 14만원) 주차지역’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법주차 차주는 다 외지인이야. 촌놈들이 마구잡이로 주차를 한 거라고.’라며 외지인에 대한 집단적인 폄하를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서른 살이 되어 침대에서 잠자리할 남자가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부제가 달린 12집은 연애에 실패한 후의 천커의 모습이 그려진다. 결혼을 기대했던 재벌 2세로부터 내연녀로 살 것을 요구받자 천커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을 보며 혼자 먹고 자고 일만 하며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을 초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36) 조사분석 자료의 출처는 北京工業大學, 中共北京市委社會工作委員會(北京市社會建設辦公室)와 社會科學文獻出版社가 연합하여 배포한 《社會建設藍皮書(2013)》이다. 範麗娜, <“北漂”群體生存狀況探析>, 《北京市工會幹部學院學報》 第32卷 第4期 2014年12月, p.35에서 재인용.

37) 張羽, 《80後“北漂”的生存狀態探析》, 中國馬克思主義學院 碩士論文, 2008.

38) 張羽, 《80後“北漂”的生存狀態探析》, 中國馬克思主義學院 碩士論文, 2008, p.1.

점점 말수가 줄어 혼자의 삶으로 빠져들던 그녀에게 집주인은 방을 비워달라고 하고 천커는 혼자 수레로 밤이사를 하면서 ‘고독이 수치스럽다’고 독백을 한다. 사회적 성공이 그녀의 자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미혼의 자신을 스스로 ‘노처녀(성녀)’로 규정하는 이 대목은 극 초반에 “신데렐라의 구두는 내가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 더 빠르다”며 호기롭게 외치던 자립적인 모습과 대비된다. 베이징에 자신의 ‘장소’를 가질 수 없는 외지인의 고립감은 ‘미혼의 나이 든 여성’이라는 시선에 의해 증폭되어 ‘주체’라는 인식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2.2 수퍼우먼과 ‘결혼적령기’

《베이징 여자도감》은 장회소설처럼 매 회 소재목이 달린 에피소드식의 이야기 구성방식으로 1, 2집은 갓 상경하여 성공에 대한 욕망만 가득한 주인공의 평범성과 가난이 부각되어 있다.³⁹⁾ 첫 직장으로 직원들의 도시락 심부름과 손님에 맞는 안내 데스크 자리를 구한 천커는 착실한 사내동료와 동거 생활을 하는데 그런 형편에도 그녀는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루이비통 백을 카드로 구입한다. 이 일로 애인과 다툰 뒤 ‘월세살이에 라면을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애인에게 ‘야망이 없다’며 결별을 선언한다. 그 후 우연히 인터넷 관련 홍보사업을 하는 여성인 까오 사장(高經理)과 인연이 닿아 재벌 2세(富二代) 남성 고객을 소개받고 천커는 젊음과 미모, 열정을 자산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또 그와 연인관계가 된다. 단신인 까오 사장의 제안으로 사장의 호화주택에 들어가 살게 된 천커는 순식간에 세련된 ‘도시의 직장여성’으로 변모한다.

한편, 순조로운 직장생활과 달리 그녀의 연애는 실패를 거듭한다. 첫사랑인 고향 친구, 직장동료, 재벌 2세, 얼치기 아티스트, 베이징 호구 남자, 헬쓰 트

39) 옥수수 하나를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반쪽을 사서 길가에 쪼그리고 먹는 천커의 모습이 그러하다.

레이너 등 그녀의 연애 상대는 열 손가락도 모자라지만 이 모든 연애는 그녀가 원하는 '성공적인' 결혼으로 귀결되지 못한다. 그녀의 화려한 연애사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수용자들은 천커가 “베이징에 있는 남자를 ‘우표를 수집하듯’⁴⁰⁾ 입맛대로 사귀며 미모를 이용해 남자를 통해 신분 상승을 하려 한다고 비난한다.⁴¹⁾

실제로 천커의 결혼을 향한 노력에는 비난을 받을 만한 '기획'적인 측면이 농후했다. 고객인 재벌 2세와 연인관계를 만든 것도 그러하지만 결혼소개소에 남편감으로 베이징 호구를 가진 남자이기만 하면 된다고 요구한 것이 그러하다. 14집의 부제인 “나는 베이징 남자에게 시집갔다”처럼 그녀는 “기적처럼” 서른 살에 베이징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남편은 주택 등기 권리증이 아니다”라는 15집의 부제가 암시하듯, 도박중독에 마마보이인 남편과 집의 소유권을 권시부모와의 갈등으로 결혼은 파탄에 이르고 그녀는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온다.

통상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집' 마련은 남자의 몫으로 인식된다.⁴²⁾ 그런데 천커는 처음부터 '집'을 마련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자력으로 집 장만이 어려워져 결혼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으나 애초의 집 장만 시도는 결혼 시장의 남녀 간의 성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쿄여자도감》을 모방하여 만든 일본의 드라마 《도쿄남자도감》⁴³⁾의 남

40) ID: 舞舞力全開嘿, 2018年04月12日, “才出6集, 戚薇就經歷6個男人了...初戀男友, diao 絲同學, 已婚老板, 中層小開, 色欲高管, 富家公子。而且每個都對她有意思! 這是北京男子集郵冊吧……”

41) 천커의 허영심을 비판하는 가장 신랄한 견해로 다음과 같은 댓글이 있다. 梅子 1480479551493826, 2018年04月12日, “我本以為這個電視劇會是勵志片, 結果一看讓人失望。女主愛慕虛榮, 嫌棄張超沒錢覺得跟他在一起丟臉就拋棄他。靠美色誘惑 靠說謊話博取富二代的同情獲得合同, 根本就不是用真誠打動客戶。…… 讓人感覺女主好不矜持, 面對富二代追求, 看著有錢就答應做女朋友, 這答應的也太快了吧, 讓人覺得只要是個有錢的男人追求都會貼上去, 讓人感覺女主把自己給賣了。這一路走來女主都很順利, 根本就沒有什麼困境, 並且工作也不是靠自己的本事得到的。這部劇會把剛畢業的大學生給帶壞的, 讓人覺得女人只要有美貌, 找個有錢的男人作為跳板就可以了。哎。”

42) 위투(呂途) 지음,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정규식·연광석·정성조·박다짐 옮김, 서울: 나람북스, 2017, p.216.

43) 《東京男子圖鑒》은 도쿄카렌타(東京カレンタ)의 공식사이트에 2019年 9月14일부터 11月16일까지 11회에 걸쳐 연재된 일본의 소설로, 2019년 12월에 일중 합작으로 제작되어 중국에서 먼저 방영된 후 2020년 5월부터 일본에서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이다. <https://>

주인공은 자신의 목표를 '5년 안에 연봉 1천만 엔(1억 원)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는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집 장만도 연애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베이징 러브스토리》에서 애인을 배신한 스샤오명 역시 옛 애인에게 "넌 여자니까 달라, 난 남자니까 성공해야 돼."라고 다시 돌아오라며 회유하는 대목은 성공한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집에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찍이 기든스는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의 등장이 남성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이러한 분노의 근원이 근대적 '성별 분업'시스템에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근대'와 젠더 억압의 상관성을 '감정'이란 영역을 통해 문제 제기한 그는 근대의 남성들이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감정의 영역은 방치하고 이를 여성에게 맡기는 방식을 허용하여 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근대부르주아의 '낭만적 사랑'은 상대를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유동적인 감정의 대등한 교류로 보는 '합류적(confluent)' 관계가 아니라, 둘 사이의 친밀성이 '유일하고 하나뿐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을 가정 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⁴⁴⁾ 이처럼 남성 가장을 전제로 한 근대의 '낭만적 사랑'은 '소유'개념이기 때문에 양성 간의 대등한 교류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단 여성을 '감정' 영역에 배치하고 나면 여성은 남성들 사이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성별 이분화된 시스템하에서 여성은 애초부터 일을 통해 남성과 경쟁할 '의무'(권리)가 없기 때문인데 애초에 천커는 이러한 젠더화된 성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이 집을 사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또한 '골라 가며' 사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성 역할의 전도'라는 관점에서 천커를 본다면 수용자들이 천커를 '베이징의 남성들을 우표 수집 하듯이' 사귀는 것과 남자를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을 동일시하여 남성 의존적이라고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성도덕을 논하며 천커에게 불쾌함을 표하는 견해들은 기든스가 비판했던 '낭만적 사랑'의 '소유'적 속성의 연장

www.ktv.jp/danshi-zukan/(검색일: 2020.3.1.)

44)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황정미 외 옮김, 서울: 새물결, 2003, p.107.

선상에서 천커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사랑에 있어서 여성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에 있어서는 주도적이어도 되지만 성에 있어서는 '쾌락'을 용납하지 않는 이분화된 태도는 일과 사랑 모두에 있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천커의 지향과 충돌한다. 따라서 만약 '수집하듯' 남자를 사귀는 것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토록 많은 남성을 '사귌' 수 있는 물리적, 금전적, 정신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베이파오의 현실, 즉 드라마의 리얼리티 부족을 지적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2.3 수용자들: '성도덕비판'에서 '욕망옹호'까지

이원화된 성 역할을 거부하다 타협적 방식으로 선회한 천커에 대하여 수용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댓글을 통해 살펴보면 대략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지인 정체성에 공감하면서도 드라마의 리얼리티 부족을 비판하는 견해이다.⁴⁵⁾ 수용자들은 이 드라마가 훌륭한 '국산 드라마'로 천커라는 인물에 자신들의 경험이 압축되어 있다고 보고⁴⁶⁾ 시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천커에게 공감을 표한다. 또한 동시에 천커가 도처에서 '귀인'을 만나는 우연이 남용될 뿐만 아니라 고단한 대도시생활을 너무나 쉽게 묘사하여 도저히 계속 볼 수가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⁴⁷⁾ 한 걸음 나아가 이들은

45) 微信用戶1461630434869986, 2018年04月18日, “來北京7年了, 從一個設計師助理一個月550的工資, 給設計師提包, 到現在主任設計師, 經歷了種種困難面對了各式各樣的人和事, 天天跟工長, 工地打交道, 我覺得我眼中的北京不是這樣的。我眼中的北漂女孩也不是這樣的。”

46) 微信用戶1500577707039810, 2018年04月12日, “首先, 我覺得這是一部非常好的國產良心劇。編劇肯定是一個很用心在生活去感受的人。從女主的身上看到了我的很多縮影, 不一樣的是, 我09年才到北京。”

47) 微信用戶1509206062591228, 2018年04月11日, “其實真正在大城市, 北上廣工作的人知道, 生活沒有那麼順心的, 在深圳呆了四年教會了我太多東西了。”; 支付寶用戶5293941001, 2018年04月11日, “前兩集還可以 後面的就扯淡了哪能遇到這麼多貴人 狗血 社會是殘酷 小編這樣加劇這個社會浮躁!!!!”, 成成10680, 2018年04月11日, “這太不現實了, 在北京生活一個人那有這麼容易啊, 而且選這麼順, 太假了, 看了三集就看不下去了, 演戲終究是演戲一點真實

천커가 누리는 ‘행운’이 ‘젊고 예쁜 얼굴’ 덕분이지 결코 실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고⁴⁸⁾ 월급이 7,000위안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집 계약을 하는 것은 베이징 살이를 너무 쉽게 보는 비현실적 재현의 대표적 양상이라고 지적한다.

둘째는 여주인공의 ‘가치관’, 특히 성 도덕을 둘러싼 견해들이다. 천커가 ‘6집까지 벌써 6명의 남자를 사귀었다’고 지적한 한 수용자는 주인공이 빈번하게 남자를 바꾸는 것이 남자 덕을 보려고 하는 의도라고 비판하는데⁴⁹⁾ 이와 달리 천커가 재벌 2세의 내연녀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는 대목은 그녀가 성을 팔지 않는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다.⁵⁰⁾

드라마 여주인공들의 성도덕을 문제 삼는 두 번째 관점은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시장화 개혁 이후에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이른바 ‘샤오싼 논쟁’의 연장 선상에 있다. 성공한 남성에게 기대어 소비적이고 기생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샤오싼에 대하여 여론은 줄곧 ‘배금주의’라는 말로 비판하였으나 남성을 ‘기회’로 삼아 활용하려는 여성상의 계보들은 끊이지 않고 출현하였다. 샤오싼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드라마인 《단칸 방》은 명문대 졸업생인 하이자오(海藻)가 상하이의 폭등하는 집값과 생활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시장 비서의 내연녀가 된다는 내용이나 놀라운 것은 젊은 여성들이 ‘기회만 주어진

性的都沒有，胡編亂造。”

48) 芋頭是帥哥，2018年04月19日，“看了這幾集，總感覺哪裏怪怪的。毫無疑問，女主是有野心的，這不是壞事。想要憑自己的能力，獲得更好的生活，這也沒錯。但我還是覺得哪裏不對。emmmmm女主一路開掛，靠換男朋友和曖昧對象上位。妳他媽還憑自己能力？哪次不是靠自己的臉蛋？所以那麼怕老，畢竟是自己唯一的資本。欲望，得配得上自己的能力。而女主，顯然的能力只能是當小三。”

49) 梅子1480479551493826，2018年04月12日，“我本以為這個電視劇會是勵志片，結果一看讓人失望。女主愛慕虛榮，嫌棄張超沒錢覺得跟他在一起丟臉就拋棄他。靠美色誘惑 靠說謊話博取富二代的同情獲得合同，根本就不是用真誠打動客戶。…… 讓人感覺女主好不矜持，面對富二代追求，看著有錢就答應做女朋友，這答應的也太快了吧，讓人覺得只要是個有錢的男人追求都會貼上去，讓人感覺女主把自己給賣了。這一路走來女主都很順利，根本就沒有什麼困境，並且工作也不是靠自己的本事得到的。這部劇會把剛畢業的大學生給帶壞的，讓人覺得女人只要有美貌，找個有錢的男人作為跳板就可以了。哎。”

50) 微信用戶150920606259122，2018年04月11日，“喜歡這部劇，女人想要什麼樣的生活，就要努力上進，努力提升自己，我覺得沒什麼錯，女主都是靠自己能力得到俄，又不是去當別人的小三，又沒偷沒搶，我覺得沒錯。”

다면 자신도 하이자오처럼 되고 싶다'는 당시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중국판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라 불리는 여성 성장드라마인 《환락송》의 주인공인 판성메이(樊勝美) 역시 유능함에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희망을 걸고 그가 장만할 집에서 누릴 풍요를 꿈꾼다.⁵¹⁾ 이처럼 시장 경제 하의 도시 청춘물은 다양한 여성상을 재현하면서도 '남자'를 통한 성공, 보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제도'(안과 밖)를 이용하려는 여성상을 부단히 그려 왔는데 《베이징 여자도감》의 천커는 그런 여성상과 비교할 때 베이징에 제도전을 선언하고 스스로 집을 마련하려는 노력 등을 통해 '자립'에의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천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용자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내가 본 것은 주저함 없이 사랑하고 미련 없이 헤어지며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는 여성이었다. 남자에 기대 먹고 살거나 내연녀가 되지 않았고 난잡하게 교제하거나 양다리를 걸치지도 않았으며 남자에게 돈을 쓰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남자에게 기댄다고 말하는가?”⁵²⁾

이 수용자는 한 걸음 나아가 그녀가 남성들과 헤어진 것을 모두 인생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 첫사랑과 사내 애인은 원래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 적합한 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망이 큰 천커와는 언제 헤어져도 헤어질 사이였다고 설명하는데 이처럼 도덕주의와 선을 긋고 여성의 성적 쾌락은 물론 야망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수용자들의 세 번째 입장이다.

이처럼 수용자들은 여성에 대한 이중의 도덕 기준을 비판하며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는가 하면 도덕적 관점에서 천커를 남성 의존적이고 배금주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풍부한 독해와 달리, 드라마는 천커가 일과 사랑을 둘러싼 남성 중심적 젠더 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기보다는 이혼

51) 丁戀. 위 논문, p.100.

52) 微信用戶1509206062591228, 2018年4月11日, “喜歡這部劇, 女人想要什麼樣的生活, 就要努力上進, 努力提升自己, 我覺得沒什麼錯, 女主都是靠自己能力得到俄, 又不是去當別人的小三, 又沒偷沒搶, 我覺得沒錯. 自己變優秀了找個優秀的另一半也沒什麼錯.”

후에 혼자된 자신을 ‘수치스런 고독’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쿄여자도감》의 주인공인 사사키 아야(佐々木綾)는 어떠한가?

3. 《도쿄여자도감》의 여성상

천커가 상경한 것이 ‘그저 그런 삶’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도쿄여자도감》의 주인공 아야도 일본 동북지역의 소도시인 아키타(秋田)현의 생활이 너무나 ‘시시’해서 도쿄로 상경한다. 그녀의 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도쿄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시도할 만큼 아야는 허영에 가까운 ‘도시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욕망의 대상은 남성에 한정되지 않아 퇴근 후의 술 한잔을 즐기는 직장문화, 길거리의 간식, 명품, 향수, 야경, 일, 연애 모든 것을 포괄하며 포스터에 두 다리를 짝 벌리고 누워 있는 모습처럼 욕망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다.



[그림 1] 《도쿄여자도감》의 메인 포스터



[그림 2] 《베이징여자도감》의 메인 포스터

한편 《베이징여자도감》의 천커는 여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10여 명의 남성이 에워싸고 있어 이성애적 연애와 결혼에 서사의 중심이 놓여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아아가 누리고자 한 욕망의 대상은 우열보다는 '취향', 혹은 '선택'에 가깝다. 《도쿄여자도감》의 서사 방식은 《베이징여자도감》의 서사 방식과 달리 다양한 삶을 선택한 여성들이 각각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기 삶을 '합리화'하는 방백식 서사를 취하고 있다. 유모차를 끄는 전업주부가 카메라를 향해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아기가 있어서!'라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가 하면, 브런치를 즐기는 고소득 비혼여성들은 시끄럽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 딸린 주부들을 폄하하면서 '저 여성들은 내숭을 떨고 있습니다! 우생학적으로 보면 인류를 위해서는 저런 아이들은(……)'이라고 독신주의의 우아한 일상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들은 뒤에서 젊은 남자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 각자가 유쾌하

게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기법은 보는 이에게 시선의 평등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서사의 수평 감각은 도쿄와 지방,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재현하는 방식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졸업 직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아야는 놀랍게도 10년 후 ‘남들이 알아보는’ 명사가 되어 귀향한다. 그러나 대견해 하는 선생님 앞에서 아야는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 그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고요.’라며 절망하듯 엎어지며 명품 구찌 사업장의 고위직이라는 명성과 달리 손상되고 황폐해진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도쿄에 입성한 아야는 값싼 서민주택가인 산겐자야(三軒茶屋)에 방을 얻어 애인과 퇴근 후의 선술집과 길거리 꼬치를 즐기며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소박한 애인과 헤어진 뒤 한 단계 ‘수준’을 높여 홍대 앞과 같은 젊은이들의 거리로 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청담동과 같은 ‘상류 사교 사회’를 상징하는 에비스(惠比壽)광장으로 진출한다. 그러나 300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를 카드로 사 입고 에비스로 나간 그녀는 ‘도쿄 출신에 고액연봉의 대기업직원’ 애인에게 바람을 맞는다. 애인은 ‘가정주부가 꿈’이라고 하는 명문가의 규수와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 아야는 찾아가 격하게 항의를 하지만 결국 ‘혼기’에 대한 압박감에 결혼소개소로 향한다. 단체 맞선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데이트신청을 하지 않아 혼자 남겨져 당혹해하는 아야에게 커플 매니저는 조용히 다가와 드라마의 백미에 해당 하는 ‘조언’을 한다.

“매니저: 가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외모나 사회적 능력보다는 생식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열심히 캐리어를 쌓아오신 분에게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조건을 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야: 제가 원하는 건 연봉 1000만 엔, 키 175이상, 30대, 3가지뿐이에요.

매니저: 그런 조건의 남자분들은 갓 졸업한 여자분들이 노리고 계세요, 대학생도 있구요.

아야: 무슨 취업준비도 아니고...

매니저: 아뇨, 맞아요. 여기 오는 여자분들은 취직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와

요. 당신은 아내를 구하러 온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복장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고 계신 옷이 비싼 명품들이라는 것은 딱 봐도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치를 좋아하는 돈이 많이 드는 여자라고, 대놓고 나다니는 여자로 보이게 돼요. 여기 온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쓰고 계세요. 윤기가 흐르는 머릿결이라든지 피부, 손톱은(……) 당신은 조금 더 베이징이나 청결감있는 쪽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좀 더 여성스럽게 화려한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패션이세요. 빠릿빠릿하게 일할 것 같은(……) 좀 더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만한 쪽으로 바꾸시는 게(……)."⁵³⁾

바쁜 전문가 직장인답게 꾸미고 정돈된 자신의 몸차림이 아내로서 실격이라는 말을 듣고 아야는 감정적인 교류를 포기하고 조건에 맞는 남자를 골라 서둘러 결혼을 한다. 그러나 성취감도 순간, 신랑은 '떨어진 와이셔츠 단추'를 달아준 어린 계약직 여직원과 불륜에 빠지고 아야의 신혼생활은 중지부를 찍는다.

이혼 후 고향에 내려간 아야를 재현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한데 그녀는 도시에서의 '가면'을 벗고 선생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맨 '얼굴'⁵⁴⁾을 드러낸다. 아버지는 귀향한 딸에게 '너 재혼 안 할거야?'라고 묻는가 하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너 도시에서 쫓 살았다고 아키타를 무시하는 거야?'라고 농 섞인 핀잔을 준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과 모여 수다를 떨던 엄마는 남편이 선물해 준 귀걸이를 자랑하다가 실은 '가짜'라며 좌중을 폭소케 한다. 이처럼 고향 아키타는 삶의 잔잔한 일상이 흐르고 유쾌하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재현된다. 이와 비교할 때 《베이징여자도감》의 장소성은 위계적이고 계몽적이다.

출국용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귀향한 천커는 담당 직원의 태만으로 기간 내 비자발급을 받지 못하여 홍콩여행을 포기하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리고 '낡아서 구멍이 난 폴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니는 모친은 온라인 구매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사기

53) 《도쿄여자도감》 제7회, https://www.youtube.com/watch?v=lJ8-69H_RpU(검색일: 2020.1.15.)

54) 김현경, 앞의 책, pp.88-90. '가면'은 역할과 성격을 연기하는 것이며 '얼굴'은 그 이면에 있는 자아, 존엄, 신성함, 명예 같은 개념이다.

때문에 사기당하기 십상'이라며 천커의 권고에 귀를 닫고 애플 폰을 구경도 못 해 본 고향 친구들이 천커의 애플폰의 카메라 렌즈가 2구라서 짝퉁이라고 우기며 극장에는 가래를 뱉고 떠드는 중년 남자들이 있다. 이처럼 고향은 '낙후하고 무지하며 교양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떠나고 싶은 곳이다.

이혼 후 귀향한 천커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아이가 딸린 사별한 안과의사와 결혼을 결심한다. 결심 후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내 사랑, 베이징!(我愛北京!)"이라고 외치며 최종회에서 당차게 재도전을 선언한다. "베이징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야, 우리는 다들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北京, 真是個擁有限可能的城市, 我們都是這其間擁有限可能的人)"라는 평소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베이징은 '있어야 할 것이 다 있고 합리적이며 기회로 가득한 곳'이라는 믿음은 견고하였다.

반면, 이혼 후 아야가 택한 두 번째 동반자는 직장에서 존재감이 약하고 남성성도 강하지 않아 늘 여자 동료들 모임에 끼던 남성이었다. 그와 도쿄 외곽의 허름한 연립주택에 살림을 차린 아야는 웃는 듯 마는 듯 "적어도 고독사할 걱정에선 해방됐습니다."라고 카메라를 보며 말한다. 그리고 최종회에 "굿 바이, 도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긴 나레이션을 한다. "도쿄를 게임의 무대로 선택한 여자들은 롤 플레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그 게임을 완수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모아왔습니다."라고 운을 댄 뒤, 산겐자야에서의 연애를 떠올리며 "그 행복의 작음이 슬퍼서 손 놓아 버렸지만 지금은 그 작은 행복의 고마움을 알겠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은 그것들을 위해 돌아오는 길이었던 걸까요?"라고 회상한다.⁵⁵⁾ 그리고 화면은 그녀와 다른 삶을 택한 전업주부, 상간녀, 직장 여상사의 '그 후'의 삶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그녀는 바벨탑처럼 욕망을 향해 위로만 올라가려던 꿈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그 꿈은 욕망을 부추기는 화려한 도시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며 '작은 행복의 고마움'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이다.

55) <https://www.youtube.com/watch?v=Vor9xBdvvKw>(검색일: 2020.4.1.)

이러한 원작의 재현방식은 베이징과 고향을 '낙후 vs 문명'이라는 계몽주의적 방식으로 재현하고 '행복'이 아닌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변안작의 서사 방식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즉 '여성스러운' 외모를 활용하고 젠더 롤 위에 구축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대한 거리감이 없으며 일관되게 흐트러짐 없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성공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천커 개인의 성향인가, 아니면 80년대생들이 지니고 있는 집단적인 특성인가? 아래에서는 세대론과 역사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80년대생 여성 욕망의 특징과 구성

4.1 '정책-자본-미디어'의 삼각동맹과 '노처녀'

2000년대 이후 미혼의 직장여성은 드라마에서 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과 미디어에 의해 급작스럽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드라마의 수용자들은 《베이징여자도감》의 주인공을 도전과 성장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공 스토리가 현실과 괴리된 '우연'과 '행운'의 과잉으로 파오족을 대표할 만한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기관과 미디어가 적극 개입하는 양상을 보면 드라마를 현실과 재현의 간극이 두드러진 리얼리티의 부족이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불충분하며, 과연 '노처녀' 담론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결혼'이 현 중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신분 상승과 안정을 보장할 만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중국 사회는 두 자리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뉴 노멀(저성장)'시대로 누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격차' 속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이다. 오늘날 폭등한 부동산과 장

소에 기반한 제도적 차별이 1990년대 이후에 조성된 파오족의 생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선재자본(先在資本)⁵⁶⁾이 없는 80년대생 동세대 남성과의 '결혼'이 마치 80년대생 여성들에게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상승혼(upper marriage)을 유포하는 미디어⁵⁷⁾와 사회현상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정책의 성비 불균형 문제, 그리고 1980년 이후 성공을 경제적 성공과 동일시하고 인생의 '가치'에 대한 성찰 자체가 부재한 '역사의 단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7년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 언어문자위원회(國家語言文字委員會)는 매년 미디어에 배포하는 《중국 언어생활 상황 보고(2006)》⁵⁸⁾에 올해의 신조어로 '성늬'를 등록하고 이를 “고학력, 고수입, 높은 연령들 가운데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나이 많은 여청년”⁵⁹⁾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부가 성늬를 상용 중국어로 인정 한 그 해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이하 '부련')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 <정말 우리의 동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노처녀'들은 얼마나 될까?> 라는 문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었다.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항상 부잣집으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외모가 별로인 여자들은 몹시 어렵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학력을 높여 자기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애통하게도 이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치가 떨어져 석사를 받고 박사졸업장을 딸 때가 되면 뚝배에도 나이가 들어

56) 선재자본은 '개인적 노력 이전에 축적되어 있는 자본'이란 의미이다. 양칭샹(楊慶翔) 지음, 《바링허우(80후), 사회주의국가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살아간다》, 김태성 옮김, 서울: 미래의 창, 2017, p.25.

57) 양칭샹은 위 책에서 드라마 《분투》를 완전히 허구라고 비판한다. 주인공들의 배우에는 엄청난 선재 자본이 있기 때문에 분투가 가능하며 그들의 출발점은 현실 속 바링허우가 평생을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종착지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한다. p.25.

58) 원문 제목은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2016)》, 羅愛萍, 王峰, 江宇 著, 《中國剩女調查-關於剩女我們需要壹個真相》, 廣東省出版集團, 廣東人民出版社, 2014, p.6.

59) “高學歷 高收入 高年齡的一群在婚姻上得不到理想歸宿的大齡女青年。” 羅愛萍, 王峰, 江宇, 위의 책, p.7. 이 책에 따르면, '성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4년으로 인터넷 플랫폼인 新浪網이 2004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341건의 성늬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얼굴이 누렇게 되어 버린다.”⁶⁰⁾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기구인 부련이 여성을 '나이'로 구분하고 고풍력 여성이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화한 이 내용은 '일찌감치 결혼을 서두르라'는 취지로 쓰인 글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로 사람들은 대략 27세가 넘는 여성들을 '성늬'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201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성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는 '성늬'가 '먹다 남은 밥(剩飯)'과 같다는 발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⁶¹⁾ 미디어는 이를 신속하게 보도하여 성늬를 대중적으로 확산, 유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고풍력의 고소득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여성들이 "잘 생긴 외모에 벤츠, 호화주택으로 머리가 꼭 차 있어 노력하고 분투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려는 돈을 숭배하는 여자(拜金女)"⁶²⁾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보도는 빈번하게 반복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베이징여자도감》에서 천커가 상경한 첫 해에 길거리에서 "여자가 스물다섯 살이 넘으면....."이라는 행인의 얘기를 듣고 흠칫 놀라 위축된다거나 자신의 인생사를 논의하는 동향의 남자 절친이 그녀에게 "여자한테 뭐가 중요하니? 시집을 잘 가는 게 중요하지."라고 대놓고 말할 때 묵묵히 듣고 있는 장면이 결코 맥락 없이 배치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천커의 인생 롤모델인 까오 사장이 천커에게 들려준 자신의 성공비결이다.

60) "長相靚麗的女孩子不需要太高的學歷照樣可以嫁入豪門，但相貌平平的女孩子則很難，所以，這樣的女孩子就希望能夠通過提高學歷來增強自己的競爭力悲哀的是，她們不知道女人是越老越不置錢，等拿到碩士、博士畢業證的時候，不料自己已經人老珠黃。" [美]洪理達 著，《剩女時代(Leftover Women)》，李雪順 譯，廈門：海峽出版發行集團 露江出版社，2016，p.7.

61) 2011년 3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전국정협 11기 4차 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11기 4차 회의 기간에 발생한 일이다. 중국에서는 이 두 회의가 가장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회의로 '兩會'라고 부른다. 羅愛萍, 王峰, 江宇 著, 위의 책, p.37.

62) 羅愛萍, 王峰, 江宇 著, 위의 책, p.32.



[그림 3] 《베이징여자도감》의 한 장면.

<https://movie.douban.com/subject/27176635/>

“사실, 그건 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었어. 두 번의 이혼을 하면서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았거든. 열심히 일을 잘 해야 하지만 결혼도 잘 해야 되는 거야. 만약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여자에게 결혼이란 게 (태어나는 것 다음으로: 인용자 첨가) 두 번째로 배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결혼이 ‘배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롤모델로부터 천커는 성공이 결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극 말미에 천커가 고향의 모친(세대)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하다가 후원자로서 믿음직한 ‘의사 남편’을 권유하는 모친의 제안을 받아 들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납득이 된다. 아야의 부모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 둔 연애와 결혼이 천커에게는 ‘성공전략’이었다고 판단하게 되는 지점이다.

한편,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2007년 이후의 사회 분위기는 이미 1980년의 한 자녀 정책 공표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고령화, 성비 불균형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에 발표한 <중공 중앙이 우리나라 인구증가를 통제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체 공산당원과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中共中央關於控制我國人口增長問題致全體共產黨員、共青團員的公開信)>⁶³⁾에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문제가 발생할 것이

63) 출처: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5-02/04/content_2547034.htm(검색일: 2019.5.1.)

라고 이미 언급하였으며 이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이르러 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2015년에 한 자녀 정책의 폐지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남초 성비 불균형문제는 20대 여성 인구의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점증하는 여성들의 만혼과 비혼으로 인해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통계수치를 보면 1990년에 25세 이상의 미혼여성이 2,887,771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4,654,420으로 늘어 20년 만에 5배가 증가하였고 25-29세 여성 가운데 미혼자가 21.6%였다. 30-34세의 미혼여성도 2000년에 1.35%이던 것이 2010년에 5.35%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본래 여성의 만혼과 비혼증가는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와 근대화의 보편적 결과이다. 중국사회는 이런 결과에 직면하여 미혼여성을 '사회문제'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와 결혼 정보 회사들에 의한 결혼촉진을 위한 맞선 행사(相親會)추진으로 대응하였다.⁶⁴⁾ 즉, 부런은 결혼 정보 회사와 계약을 맺어 맞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TV에는 맞선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형 맞선 행사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서 열렸다. 부런과 미디어는 '혼인적령기'라는 담론을 통해 여성을 타겟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사를 확대해 나갔으며 대표적인 결혼정보업체인 세기가연(世紀佳緣)은 2010년에 회원 수가 2,200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다.⁶⁵⁾ 미디어가 '성남(剩男, 남아도는 남자)'이 아닌 '성늬'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결과 마치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많은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실제 혼인 연령대의 남성 숫자는 여성보다 3,000만 명이 많은 것(2021년)으로 추산되었다.⁶⁶⁾

25세를 여성의 혼인적령기라고 규정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정부와 자본이 결혼 시장 확대를 통해 '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일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고학력 여성 인재들을 생물학적인 '나이-젠더 시스템'

64) [美]洪理達 著, 앞의 책, p.6.

65) 羅愛萍, 王峰, 江宇, 앞의 책, p.24.

66) 顧寶昌, <實行生育限制的理由已不復存在>, 《人口與社會》 第31卷 第2期, 2015年 4月, pp.10-11.

로 환원시키는 퇴행적인 것이다. 1980년 계획생육입안 당시에 정부가 제시했던 해결방법은 이러한 ‘혼인적령기’ 강조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한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낳도록 제창한 후 관련기관이 일부지역에서 첫 신생아의 성비를 조사해본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아가 자라 (남아와: 인용자 첨가) 똑같이 노동을 하고 일부 전문적 노동은 아주 훌륭하게 해 낼 수 있고 가사노동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남편을 처갓집에서 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밑줄은 인용자 강조) 신중국의 인민, 특히 청년세대는 남존여비의 낡은 사상을 극복하여 딸 하나만을 낳았을 경우에 그 아기를 (남아와: 인용자 첨가) 똑같이 훌륭하게 길러야 할 것이다.”⁶⁷⁾

당초에 제시한 대응방안은 오늘날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대응 문제와 함께 지적해야 할 것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미디어의 보도방식이다. 미디어는 ‘성년’가운데 학력이 대졸 이상자가 95%라고 보도하였으나 2010년 인구센서스는 해당 집단이 17%라고 보고하였다. 또 미디어가 28-31세의 미혼여성비율이 48.1%라고 보도한 것과 달리 2010년 인구센서스는 그 비율이 26.7%라고 발표하였는데⁶⁸⁾ 이처럼 학력과 숫자를 부풀린 결과 ‘여박사(女博士)’는 대표적인 ‘성년’집단으로 비난의 타겟이 되었다.⁶⁹⁾ 결혼정보업체와 미디어는 미혼 집단을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28-31세의 여성을 ‘중급 성년’로 부르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성년(必剩客) 집단’이라 설명하고 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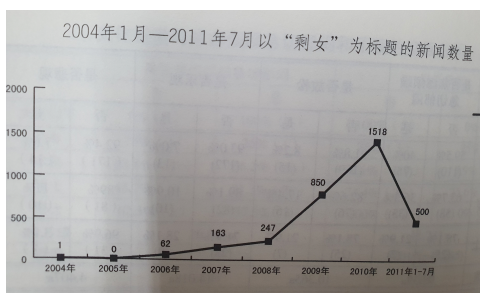
67) “提倡一對夫婦只生育一個孩子以來，有關部門在一些地區對頭胎生育的孩子的性別比例作了調查，結果也是男孩比女孩稍為多一點。女孩長大一樣勞動，有些專業勞動可以幹得很好，更會做家務勞動，還可以讓丈夫住在女方家裏。新中國的人民，特別是青年一代，一定要克服重男輕女的舊思想，如果只生了一個女孩，同樣要把她撫養好。” <中共中央關於控制我國人口增長問題致全體共產黨員、共青團員的公開信>: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5-02/04/content_2547034.htm(검색일: 2020.4.1.)

68) 羅愛萍, 王峰, 江宇, 앞의 책, pp.12-13.

69) 인테넷 매체에서는 ‘女博士=滅絕師太, 嫁不出去(독하고 억세서 시집을 못 간다)’라는 표현을 몹시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고학력 ‘성년’를 집중 조명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저학력 가운데는 나이 많은 성년이 적다고 보도하였다. 羅愛萍, 王峰, 江宇 著, 앞의 책, p.12. ‘滅絕師太’는 진용(金庸)의 무협소설 《의천도룡기》에 나오는 여자 무협고수로 성격이 독하고 냉혈하여 자신의 뜻에 어긋나면 상대를 죽여버리는 성격의 소지자이다.

세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계속 분투할 용기가 있는 자(剩斗士)'인 '초급 성녀'라 불렸다. 그리고 36세 이상은 아예 기회가 없는 집단으로 '특급 성녀'라고 칭하였으며 이런 용어는 인터넷과 일상에 상용되고 있다.⁷⁰⁾

'성녀'는 이와 같이 정부와 자본, 미디어 이 세 권력이 만든 산물로 여성들에게 가정(인구 재생산)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라고 압박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밀봉'된 중국 내 담론에 한 줄기 숨통을 틔워준 것이 21세기 동시대 한국사회의 미혼여성의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작가이자 방송인인 쑤친(蘇芩)⁷¹⁾은 2012년 한국을 방문하여 강남구에서 30세가 넘는 여성 가운데 40%가 미혼여성이며 이 여성들이 중국의 미혼여성들처럼 '고학력, 고수입, 그리고 일정 수준을 갖춘 남성'을 원한다는 것을 보고는 양국의 공통된 이 현상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감탄'하였다고 전한다.⁷²⁾



[그림 4] 《중국성녀조사(中國剩女調查)》, 20쪽.

그러나 '성녀'담론이 부상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경제적인 데 있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중국에서는 '성녀'보도가 도표와 같이 급증하였다. 경기가 위축되자 한 정협 위원은 2010년에 국가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여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011년에 개

70) 洪理達 著, 앞의 책, p.24. 1등급 연령 구분은 중국의 新華社가 보도한 것이다. 상세 분류에 대해서는 <https://baike.baidu.com/item/%E5%BF%85%E5%89%A9%E5%AE%A2/9954031?fr=aladdin>를 참조할 것.

71) 작가이자 미디어 편집자이며 대표작으로 《男人那點心思, 女人那點心計》, 《官場紅學》이 있다. 삼성 경제 연구원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홍루무학(紅學)에 대한 강연을 한 바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녀가 운영하는 “蘇芩女學館”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로 방문객이 6억 이상이다. <https://baike.baidu.com/item/%E8%B%8F%E8%8A%A9/10690783?fr=aladdin>(검색일: 2020.2.2.)

72) 羅愛萍, 王峰, 江宇 著, 위 책, pp.32-33.

최된 양회(兩回)기간 중에는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讓女人回家”)”며 “국가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다하고 출산황금기에 정상적으로 출산을 할 것”을 권하였다.⁷³⁾

2.2 일체의 ‘도구화’-역사의 단절과 성찰부재

결혼에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되고 여성을 향한 압박의 증가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사회 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응책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응을 단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이라 설명하고 끝내도 될 것인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천커의 두 번째 결혼대상은 감정적 소통은 불충분하지만 안정성과 신뢰라는 점에서 선택되었고 이 선택은 천커의 재도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⁷⁴⁾ 이것을 베이징드림 실현을 위한 일체의 도구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며 이러한 도구화는 ‘경제적 성취’가 ‘성공’과 동일시되는 문화의 결과이다.

《바링허우(80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살아간다》⁷⁵⁾의 저자 양칭샹은 자신을 포함한 80년대생들의 삶을 세대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을 읽어 내었다. 그는 80년대생을 ‘내 아버지는 ○○○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제 자본이 없는 세대라고 정의한다. 즉, 80년대생들은 베이징 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03년 1㎡당 4,000위안에서 60,000위안으로 15배나 수직 상승 한 현실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나, 버려진 느낌’을 갖고 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구조는 향후 ‘실패자로서의 자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칭샹은 개혁개방이 시작될 무렵 ‘건강한 몸’은 개혁자들이 갖춰

73) 이 주장을 한 인물은 인기스타급 정협 위원인 張曉梅이다. 羅愛萍, 王峰, 江宇 著, 위 책, p.38.

74) 의사 남편은 자신의 저축통장을 주며 사무실을 얻는 데 쓰라고 천커에게 건네주고 천커는 받으면서 그에게 기대어 안긴다.

75) 양칭샹(楊慶祥) 지음, 《바링허우: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살아간다》, 김태성 옮김, 서울: 미래의창, 2017. 원제는 《80后, 怎么办?》이다.

야 할 자랑스러운 자분이었으나 오늘날 모든 것은 돈으로만 평가되고 몸은 상상과 창조가 아니라 소비와 교환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고 보고 자신들의 부모세대인 1950년대생이 80년대생들과 달리 문화대혁명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어 작금의 현실을 성찰할 '거울', 즉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⁷⁶⁾ 다시 말하면, 80년대생은 '거울', 혹은 '전통'이라고 표현되는 '역사'와 대면하지 못하고 성장하였다는 점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뿌리는 1980년대에 일어났던 '인생의 가치' 논쟁-판샤오(潘曉)토론⁷⁷⁾을 급격하게 종식시킨 데 있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로 소급해 올라가야 한다는 양칭샹의 주장은 허자오티엔(賀照田)이 던진 중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만난다. 허자오티엔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윤리를 중시하고 사회주의 정권도 강력한 이상주의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혁개방 이후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일상의 삶이 모두 상업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일상적 언어와 감각이 시장 논리와 소비주의로 물들어 버렸는다고 질문하고⁷⁸⁾ 그 답을 1980년대로 돌아감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답한다. 문혁이 종결될 무렵 그는 혁명의 내적 완결성과 설득력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었음에도 여전히 이상주의적이고 숭고한 혁명적 언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공허한 이상주의가 존재하던 당시 세대에 사람들이 반감을 느꼈으며 그런 말들보다는 실제적 삶에서 물질적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⁷⁹⁾ 그리고 이런 (혁명) 허무주의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시장이데올로기와 소비주의에 균형을 부여하기 위해 이상주의를 가장 필요로 하던 90년대에 정작 과거의 이상주의는 이미

76) 사회주의 시기를 거친 북한의 중년 세대와 시장화 시대에 각자도생하고 있는 중국의 80년대생은 '참조체계 없음'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며, 중국 사회주의의 50년대생과 80년대생의 사유구조와 유사하다. <511회 SBS 스페셜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53591/22000275698>(검색일시: 2020. 5. 30)

77) 김미란, <판샤오潘曉토론(1980)에 나타난 문화대혁명의 극복서사 — 공사公私관념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5호, 2009.

78) 허자오티엔 저,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임우경 옮김, 2018, 서울: 창비, p.27.

79) 허자오티엔, 위의 책, p.64.

무너진 채 힘을 쓰지 못하였다고 애통해한다. 그 결과 시장화 개혁이 “협애한 경제적 감각을 전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시켰으며 정치와 문화, 일상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의 감각과 상상은 ‘경제 감각’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⁸⁰⁾ 그의 이 분석은 양칭샹이 고민했던 내용, 즉 80년대생들 스스로 자기 세대가 “오로지 일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숭고한 이상을 품는 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며 눈 앞의 물질적 삶이 풍요롭고 몸이 편안하면 된다”⁸¹⁾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에 일말의 희망을 제시한다. 역사로부터 ‘거울’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친커는 부모세대에 대한 존중이나 역사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오로지 성공을 위해 일체를 ‘도구화’한다. 이는 80년대생이 지닌 ‘발전주의에 대한 맹신’에 다름 아니며 그녀의 인식은 1985년에 제정된 일본의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을 역설하는 《도쿄여자도감》의 서사 방식과 대비된다. 아야를 채용한 구찌 매장의 여상사는 면접을 보러 온 아야에게 ‘남녀 고용 균등법을 아느냐’고 질문한 뒤 아야가 모른다고 답하자 카메라를 향해 격앙된 톤으로 아래와 같이 쏘아붙인다.

“1985년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여자를 내가 뽑을 수는 없지.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여자들은 차를 따르고 복사같은 잡일을 하고 남자들만 승진을 해서 여자는 남자들이 손가락으로 시키는 대로 움직였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결혼을 안 하느냐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서른 살이 넘으면 뒤에서 수퍼우먼(女強人)이라고 수군거리지를 않나, 씩씩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눈에 띄는 게 없어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야근하라고 하면 인상이나 찌푸리고(……) 승진보다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질 않나, 퇴근하면 튀어나가 연애사업을 하러 달려가고, 우리 윗세대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남녀평등을 쟁취했는지도 모르고.”

80) 허자오펜, 위의 책, p.129.

81) “處在這個時代的80後女性形象，只有這對工作的追求，卻沒有樹立什麼崇高的理想，她們眼中理想就是物質生活上能過得比較好，比較舒適。”肖穎，《新世紀國產都市劇中的80後女性形象》，湖南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2011，p.21.



[그림 5] 《도쿄여자도감》 중 한 장면

<https://www.youtube.com/watch?v=BZhiuwMR6Fw&t=1123s>

비록 여상사가 아야에게 직접적으로 설교나 설득을 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도쿄여자도감》은 개인과 역사를 마주 보게 하는 '점'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파편화된 각각의 인물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결혼을 둘러싼 젠더 이분법적 태도에 균열 효과를 낸다.

5. 나가며

2018년에 방영된 《베이징여자도감》은 시장화 이후 결혼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배운' 80년대생 여성의 인식을 재현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대도시에 호적이 없는 '지방 출신'이라는 '베이파오' 정체성과 결혼적령기로 인한 딜레마를 겪지만 결국 '분투하는' 파오족 정체성이 젠더적 자각을 압도하는 '발전주의에 대한 맹신'으로 기운다.

그 결과 도시를 떠도는 불안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파오족임에도 주인공에게는 우연과 행운이 뒤따르고 수용자들로부터 리얼리티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 글은 결혼을 둘러싼 성 역할보다는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서고자 했던 주인공의 자립에 대한 '욕망'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읽었다. 즉, 기존의 성도덕비판이나 주인공의 개별적 특성이 아닌 역사적 환경과 80년대생이라는 세대론적인 관점에서 드라마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베이징여자도감》에서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대한 주인공의 칭송과 성공에 대한 낙관은 도전받지 않으며 고향과 기성세대는 대도시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즉 '문명화'되고 발전된 도시와 달리 고향 쓰촨의 소도시는 '낙후'하고 '식견과 교양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며 어머니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안일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도쿄 여자도감》이 도쿄와 지방 소도시를 수평적으로 묘사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환기시킴으로써 각각의 삶들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과 구별되는 지점이며 이러한 차이는 두 주인공의 롤 모델격인 여성상사의 인생관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결혼을 전략으로 활용하는 까오 사장과 80년대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제정의 의미를 역설하는 구찌 업장 상사의 대조적 양상이 그것이다.

2008년 이후 중국에서 여성을 능력이 아닌 재생산을 위한 '나이'로 평가하는 '성녀(노처녀)'담론이 확산된 것은 성비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출산 능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생명 정치이었다. 직접적으로는 금융위기, 부녀연합과 결혼정보업체의 제휴, 미디어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 그리고 정협이 지지가 담론생산과 확산의 연료역할을 하였다. 《베이징여자도감》의 주인공이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자존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연애와 결혼의 실패를 겪고 '고독한 수치감'을 느낀다고 고백한 것은 이러한 관방의 생명 정치 담론과 무관치 않다.

'발전주의'에 대한 신념이 '성맹(gender-blind)'적 태도 위에서 공고해지고 일체를 도구화하는 방식은 역사 경험에 대한 성찰, 혹은 참조체계를 접해 보지 못한 80년대생들의 집단적 비극이다. 마오쩌둥의 사회주의가 종식되던 1980년, 시대의 전환기에 중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며 판사오토론에 뛰어들었을 때 애초에 논쟁을 고무했던 당은 급작스레 논쟁을 중

단시켰고 그 자리는 발전주의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의 단절은 80년대생으로 하여금 물질적 부를 성공과 동일시하는 편협한 시각으로 이끌었다. 전환기에 발생한 이러한 단절과 편향은 오늘날 사회주의에서 시장화로 들어선 현 북한 사회의 중년과 80년대생 사이의 단절 양상과 유사하며 신세대의 '참조체계의 부재'란 점에서 양자는 겹쳐진다. 역사와의 만남, 성찰의 계기가 절실하다 하겠다.

< 參考文獻 >

- 王俊祥·王洪春, 《中國流民史》, 安徽人民出版社, 2001.
-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 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3.
- 羅愛萍, 王峰, 江宇 著, 《中國剩女調查-關於剩女我們需要壹個真相》, 廣東人民出版社, 2014.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2016.
- [美]洪理達 著, 李雪順 譯, 《剩女時代(Leftover Women)》, 廈門: 海峽出版發行集團 露江出版社, 2016.
- 뤼투(呂途) 지음, 정규식·연광석·정성조·박다짐 옮김,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서울: 나뭇잎스, 2017.
- 양칭샹(楊慶翔) 지음, 김태성 옮김, 《바링허우(80後), 사회주의국가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살아간다》, 서울: 미래의 창, 2017.
- 허자오텐 저, 임우경 옮김,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서울: 창비, 2018.
- 張羽, <80後“北漂”의生存狀態探析>, 中國馬克思主義學院 碩士論文, 2008.
- 丁小鶯, <《蝸居》和“中國夢”>, 北京大學 中國現當代文學碩士論文, 2011.
- 肖穎, <新世紀國產都市劇中的80後女性形象>, 湖南科技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Cui JinYing, <중국의 '핵심가정' 구성에 대한 담론 연구 -개혁개방 초기(1978~1992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2012.
- 連佳慧, <中國電視劇中的“剩女”形象研究>, 山東師範大學 戲劇與影視學 碩士論文, 2015.

- 김미란, <중국 1953년 혼인자유 캠페인의 안과 밖: 관철방식과 냉전하 문화적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2006.
- 안재연, <“리엔아이”(戀愛), 신여성, 근대성의 이데올로기: 중국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38집, 2006.
- 張權生, <<蝸居>의 여성主義批評>, 《貴州大學學報(藝術版)》, 2011年 01期.
- 김종현, <농민공 도시정착의 문제와 한계>, 《중국학연구》 62집, 2012.
- 전희경,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2013.
- 範麗娜, <“北漂”群體生存狀況探析>, 《北京市工會幹部學院學報》第32卷 第4期, 2014年 12月.
- 顧寶昌, <實行生育限制的理由已不復存在>, 《人口與社會》第31卷 第2期, 2015年 4月.
- 廉明靜, <都市題材電視劇中的“北漂”形象研究>, 《傳播力研究》, 2017.
- 杜洪曉, <電視劇《歡樂頌》中的女性形象分析>, 《視聽》, 2019年 4期.
- <中共中央關於控制我國人口增長問題致全體共產黨員、共青團員的公開信>: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5-02/04/content_2547034.htm
- 《東京男子圖鑒》: <https://www.ktv.jp/danshi-zukan/>
- 《北京女子圖鑒》: https://v.youku.com/v_show/id_XMzUyMDMxMjgzNg==.html?spm=a2h0k.11417342.soresults.dttitle&s=e18089efbfdbfbd48
- <한 달 만에 조회수 12억 뷰, 중드 ‘베이징여자도감’>: <https://blog.naver.com/wolf42b/221302365515>.
- <新時代女子圖鑒>, 《界面新聞》, 2018. 6. 1. <https://baijiahao.baidu.com/s?id=1602037576456904407&wfr=spider&for=pc>
- <《北京女子圖鑒》: “漂”時代的“漂”情緒_蒲公英獎>, 2019. 6. 21. https://www.sohu.com/a/322293289_443957
- 《도쿄여자도감》 제7회: https://www.youtube.com/watch?v=lJ8-69H_RpU
- <2.4億流動人口, 妳們爲什麼不留下來?>, 《每日經濟新聞》, 2019. 1. 30. https://www.sohu.com/a/292500916_115362

< Abstract >

A Study on the Desire Representation of Chinese Women Born during the
80's Economic Reform
- Focusing on Their Attitude towards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Pressure of "Age-Gender System"

Kim, Miran

Women in Beijing(北京女子圖鑒), aired in 2018, is a meaningful drama that shows women's awareness of "marriage" and "social success" with high viewer ratings. The drama, which depicts the desire and dilemma of Chinese women in their 30s born in the 1980s when marketization reform began, reveals the common difficulties that young women in Korea and Japan also encounter. Nevertheless,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Japanese original *Tokyo Girl*(東京女子圖鑒, 2016) and its Chinese version *Women in Beijing* in terms of the main character's final choice and the representation method.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 work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ociety, examining how the younger generation that formed an elite group after the economic reform see life and marriage. The analysis subjects of the paper are the main character's attitude towards "urban and rural areas", that is her perception of "place", and the pressure of "age-gender system" on women represented by "marriageable ag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main character's absolute belief in "developmentalism", a typical example of the non-urban 'floating population(漂族)', blocked her from taking a critical view of the gender-discriminatory reality of "marriageable age". The blind faith in developmentalism, the All-China Women's Federation(中華全國婦女聯合會), the media and capital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cognition of marriage as a tool for success.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phenomenon in Chinese society is that the "value of life" debate(對人生價值討論, 潘曉討論) in the early

1980s was not fully evolved until the developmentalism rapidly replaced it.

Key words: Born in the 80's (80后, Balinghou), leftover women (Shengnv, 剩女), *Women in Beijing* (北京女子圖鑒), *Tokyo Girl* (東京女子圖鑒), marriageable age, one-child policy, mammonism, reform and openness polic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4. 30	2020. 05. 11 - 06. 01	2020. 05. 14	2020. 06. 09	2020. 06. 30